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Bloomberg: 미 10월 소매 판매 증가세 둔화…고액 소비 부진 여파
- Bloomberg: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"내년 봄까지 수차례 금리 인상 필요"
- WSJ: 연준 의장 "AI의 경제 여파 분석 착수…AI 패권 없이 초강대국 불가"

[미국 금융]
- CNBC: 미 국채 금리, 소매판매 지표 주목하며 상승폭 줄어
- Bloomberg: 월러 연준 이사 "지급결제 시스템의 혁신 지지"

[미중 관계]
- Bloomberg: 트럼프, 중국 견제하며 쿼드 정상들과 AI 협력 추진
- WSJ: 트럼프 참모진 대중 정책 등에 이견 보여

[2027년 글로벌 전망]
- TheEconomist: The Economist가 선정한 2027년 주목해야 할 10대 트렌드 핵심 요약

[인공 지능]
- YahooFinance: AI 강세론자들, 악재 속에 매수 포지션 고수

[KMI 공급망 브리핑]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US Retail Sales Growth Slows as Car, Furniture Receipts Slip
미 10월 소매 판매 증가세 둔화…고액 소비 부진 여파

- 자동차 등 고가 내구재 지출이 줄면서 지난 10월 미국의 소매판매 증가세가 둔화했으나, 여타 품목의 소비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연방 상무부의 오늘 화요일 발표에 따르면 10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.2% 증가에 그쳤다. 유가 상승에 힘입어 0.8% 급증했던 9월보다 상승 폭이 크게 줄었다.
- 전체 13개 업종 중 온라인 소매, 헬스·개인용품, 주유소, 건축자재 등 7개 업종에서 매출이 늘었지만 가구와 자동차, 취미 용품, 의류 판매는 줄었다.

기사

Bloomberg: Fed's Musalem Says 'Several' Rate Hikes Likely Needed by Spring
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"내년 봄까지 수차례 금리 인상 필요"

-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 Alberto Musalem은 오늘 화요일 적절한 시점의 물가 안정을 위해 내년 봄까지 실질 정책금리를 약 1%포인트 높여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.
- 연준은 지난 9월 3년 만에 금리를 인상한 뒤 지난달 동결했으며, 현재 연준 관리들 사이에서는 추가 인상 공감대 속에 인상 속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.
- 금리선물 시장은 오는 12월과 내년 1월, 그리고 4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0.25%포인트씩 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기사

WSJ: Warsh Says Fed Is Gaming Out How AI Could Reshape Economy
연준 의장 "AI의 경제 여파 분석 착수…AI 패권 없이 초강대국 불가"

- 연준 워시 의장은 어제 월요일 샌프란시스코 연설에서 인공지능이 미 경제를 어떻게 바꿀지 다양한 상황별 영향을 분석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.
- 워시 의장은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관련 주가 수익률 부진이 전체 증시를 끌어내리는 경우 등 여러 파급 경로를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. 특히 그는 AI 기술을 국가 패권의 문제로 규정하며, AI 분야를 선도하지 않고는 미국이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.

- 한편, 시장은 연준이 다음 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2027년까지 추가 인상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.

기사

[미국 금융]

CNBC: Treasury yields moderate as investors parse retail sales data
미 국채 금리, 소매판매 지표 주목하며 상승세 줄어

- 투자자들이 연방정부의 주요 경제 지표등에 주목하며 오늘 화요일 미 국채 금리가 장 초반 상승폭이 줄었다.
- 벤치마크인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약 0.01%포인트 오른 5.129%를 기록했으며, 장기물인 30년물 국채 금리는 5.471% 선에서 보합세를 나타냈다.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 역시 큰 변동 없이 4.825%에 거래됐다.
- 이날 10년물·30년물·2년물 미 국채 금리는 장 초반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으나, 소매 지표 발표 이후 상승폭을 줄이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.

기사

Bloomberg: Waller Says Fed Open to ‘Responsible Innovation’ in Payments
월러 연준 이사 "지급결제 시스템의 혁신 지지"

- 연준 이사인 Christopher Waller는 오늘 화요일 결제 청산 기관인 Clearing House 컨퍼런스에서 지급결제 시스템의 '책임 있는 혁신'을 지지하며 업계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.
- 그는 탈중앙화 금융(DeFi)과 디지털 자산 기술이 기존 송금·결제망을 보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.
- 이는 가상 자산 및 핀테크 기업들의 중앙은행 결제망 접근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, 연준이 제한적 정산 기능을 갖춘 신규 계좌 도입 등을 통해 혁신 금융을 제도권으로 포용하겠다는 입장이다.

기사

[미중 관계]

Bloomberg: Trump Makes AI Push With Quad Leaders as China Rivalry Grows
트럼프, 중국 견제하며 쿼드 정상들과 AI 협력 추진

-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화요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인도·호주·일본 정상들과 만나, 첨단 기술을 둘러싼 대중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공지능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.
-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(Quad)는 이번 회의에서 신규 AI 액셀러레이터(AI Accelerator)를 출범시키고, 인도·태평양 내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확산을 위해 8천5백만 달러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.
-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인 포럼 신설과 해상 정찰기 연합 훈련 계획을 발표했으며, 회원국들은 핵심 광물 협정 체결도 함께 추진 중이다.

기사

WSJ: Trump’s Advisers Are at War Over China Ahead of Xi Summit
트럼프 참모진 대중 정책 등에 이견 보여

-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, 대중국 정책 노선과 엔비디아(Nvidia) 스캔들 책임을 둘러싸고 미국 행정부 대통령 참모진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.
- 미 재무장관인 Scott Bessent는 상무장관인 Howard Lutnick이 Nvidia 칩을 불법 우회 반출한 의혹을 받는 기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. 트럼프 대통령 역시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기 전 참모진 내에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원하는 쪽과 경쟁을 원하는 쪽이 공존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.
-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미·중·러 3자 정상회담 성사에 주력하고 있다.

[2027년 글로벌 전망]

TheEconomist: Tom Standage’s ten trends to watch in 2027
The Economist가 선정한 2027년 주목해야 할 10대 트렌드 핵심 요약

- 포스트 트럼프 시대(The post-Trump era): 중간선거 이후 차기 대권 경쟁이 시작되나, 트럼프 대통령은 레임덕 대신 행정명령·법적 분쟁·군사 행동 등으로 막판 영향력을 더 키울 것으로 보인다.
- 이란 전쟁의 후폭풍(Aftershocks from Iran): 미·이란 충돌 여파로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흔들리는 가운데, 2027년 내내 중동 정세 재편은 물론 에너지 수급 불안과 비료 부족에 따른 식량 안보 위기가 이어진다.
- 사상 최고 폭염 재발생(Hottest year ever, again): '슈퍼 엘니뇨' 현상으로 역대 가장 더운 해가 예상되며, 역설적으로 에너지 시장 변동성을 피하려는 각국의 움직임 속에 재생에너지 도입이 가속화된다.
- AI에 대한 역풍(The AI backlash grows): 불투명한 부채 거래로 인한 AI 거품 붕괴 우려와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이 현실화되는 반면, 일자리 감소나 자원 고갈 공포는 실제 데이터보다 과장된 측면이 크다.
- 유럽 우파 포퓰리즘 부상(Europe’s populist right): 2027년 프랑스 대선에서 극우 성향 국민연합(RN)의 Marine Le Pen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며, EU의 핵심 축인 독·불 연대와 프랑스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다.
- 채권시장의 압박(Bond-market pressure): 선진국들의 방만한 재정, AI 인프라 투자 붐,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재점화로 국채 금리가 치솟으며 정부와 가계·기업의 차입 비용 한계가 시험대에 오른다..
- 대만 침공 데드라인(Taiwan’s deadline): 드론 등 신기술로 약소국의 방어력이 입증된 가운데, 시진핑 주석이 설정한 '2027년 대만 점령 준비 시한'을 맞아 중국이 실제 군사 행동에 나설지 2028년 대만 총선을 기다릴지 중대 기로에 선다.
- 오젬픽 효과(The Ozempic effect): 비만 치료제 확산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한 소비자들의 의류·화장품·피트니스 '보복 소비'가 늘어나고, 제약업계의 수명 연장(항노화) 치료제 개발 열풍이 불고 있다.
- 저비용 우주 발사 시대(Cheaper space launch): SpaceX의 우주선 정기 발사와 중국의 재사용 로켓 실증으로 발사 비용이 급감하면서, 민간 우주정거장과 궤도상 데이터센터 구축이 본격화된다.

- 할리우드의 리부트(Rebooting Hollywood): 50주년을 맞은 '스타워즈'를 비롯해 '어벤져스', '007' 등 대형 프랜차이즈가 귀환하지만, 유튜버들의 저예산 영화가 흥행하며 관객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받게 된다.

기사

[인공 지능]

YahooFinance: AI stock optimists are holding on for dear life: Chart
AI 강세론자들, 악재 속에 매수 포지션 고수

- 기술 산업 전망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서도 인공지능 주식 낙관론자들이 매수 포지션을 고수하고 있다.
-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오늘 화요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, 펀드매니저의 39%가 현재 가장 쏠림이 심한 거래로 '글로벌 반도체 매수'를 꼽았다. 비중은 9월 이후 줄고 있으나 2위인 '중국 주식 공매도'를 여전히 크게 앞서고 있다.
- 현재 AI 인프라 기업들은 압박을 받고 있는데 막대한 AI 설비투자 대비 수익성 회의론, 엔비디아(Nvidia)의 리더십 위기, 동남아시아향 첨단 AI 칩 추가 수출 규제, 기업 부채를 경고한 연준의 매파적 발언과 미 국채 금리 상승까지 겹치고 있다.

기사

[KMI 공급망 브리핑]

중동 교전 격화와 글로벌 물류 차질 심화

-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피격·화재가 추가 발생하고 이란 혁명수비대(**IRGC**)가 미군 드론을 나포하며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. 이란이 미국과 '전쟁 상태'를 선언한 가운데 미군 세 번째 항모전단이 서아시아에 집결했으며, 미·이스라엘의 이란 에너지 시설 추가 공습 계획도 전해졌다.
- 예멘에서는 후티 반군의 임시수도 아덴 공세 강화로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 정부군이 철수했고, 사우디아라비아는 연합군 사령관을 경질했다.
- 물류 차질도 이어지고 있다. **ONE**이 **Maersk**, **Hapag-Lloyd**에 이어 수에즈 운하 통항을 재개했으나, 물류기업 **DHL**은 해운 혼잡 해소에 역부족이라고 경고했

다. 발틱운임지수(**BDI**)가 주간 저점으로 하락한 가운데, 미국에서는 관제 부품 수급 문제로 사흘간 1만 7,000편이 결항하는 최악의 항공 대란이 발생했다.
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5.375	-25/32	5.466	0.037
10-Year Note	5	0/32	5.136	0.002
7-Year Note	4.875	0/32	5.036	-0.006
5-Year Note	4.75	0/32	4.964	-0.010
3-Year Note	4.625	1/32	4.913	-0.034
2-Year Note	4.625	1/32	4.857	-0.033
1-Year Bill	0	-1/32	4.605	-0.029
6-Month Bill	0	-1/32	4.444	-0.023
3-Month Bill	0	0/32	4.224	-0.012
1-Month Bill	0	2/32	4.017	0.067

View Treasury Quotes Page

미국 USD	유럽 EUR	일본 JPY	중국 CNY	유로/달러	달러인덱스
1,337.80	1,475.86	836.83	200.45	1.1051	103.34
+1.30 (0.10%)	-1.57 (0.11%)	+0.76 (0.09%)	+0.18 (0.09%)	-0.0040 (0.36%)	+0.17 (0.16%)
11. 14. 01:03 ● 실시간	11. 14. 01:03 ● 실시간	11. 14. 01:03 ● 실시간	11. 14. 01:03 ● 실시간	11. 12.	11. 13. 10:56 ● 10분 지연

환전고시환율 | 국제시장환율

미국 USD

1
1 달러

대한민국 KRW

1,337.80
1,337.80 원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